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안지*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하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께서 운전을 부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학교 분위기는 한적하고 평화롭다.
Hospitality Class	관광학은 호텔과 레스토랑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심도 있는 지식을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보다는 과제를 내주시면 팀별로 준비해 발표하고 편안히 자기 생각을 나누는 방식에 가까웠다.
Computer Class	엑셀은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개인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발표를 위한 개인 홈페이지를 작업했다. 교수님들께서 모두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넘치셔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든 점은 없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Old Shasta Historical Site: 유적지 박물관 탐방, 사금 채취, 해변가에서 물놀이(수영복을 준비해야 한다.) -Olive Pressing Plant: 올리브 생산 공장 탐방 -San Francisco: 당일 치기로 다녀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광지만 짧게 방문하고 돌아와 아쉬웠다. -Burney Falls, Subway Caves, Mt. Lassen: 자연 경관 감상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높은 기온이나 건조하여 한국 여름 날씨에 비해 건달만 하다.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을 준비하면 유용하다.

안전	경찰과 기숙사 관리인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순찰하여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다.
숙소	기숙사 시설은 불편함 없이 훌륭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 기타 () 처음에는 신경을 쓰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없었다. 피자, 햄버거, 브리또, 감자 튀김 등이 주메뉴로 나오므로 이러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먹어도 좋다.
교통	버스가 있긴 하지만 막차시간이 일러 돌아올 때는 택시를 자주 이용했다. 쇼핑몰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최소 20~25(4~5인 탑승 기준) 달러 정도 든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식사비용	60000	
교통비	30000	
쇼핑	31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용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 미리 다 준비해 준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짧게나마 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3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쉬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한층 더 넓어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Old Shasta Historical Museum에 전시된 미술품이 인상적이었다.



Old Shasta Historical Park. 1800년대 레딩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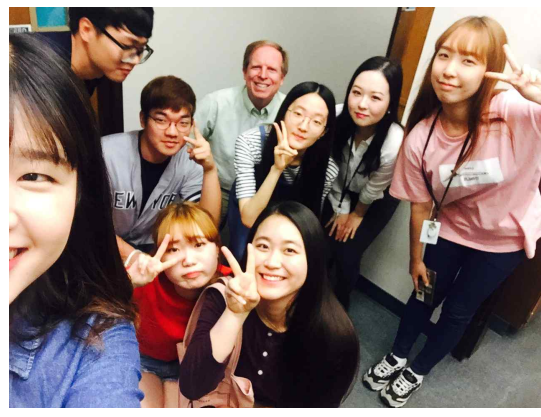
San Francisco의 Union Square Park.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한시간만에 관광을 끝내야 해서 아쉬웠다.



레딩에 도착하자마자 먹었던 인 앤 아웃 버거.



Redding Visitors Bureau에 방문해 북캘리포니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Gordon 교수님께 롤링 페이퍼와 선물을 드리고 찍은 마지막 날 사진

